충남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이규방 | 국토연구원장

Ⅰ. 충남의 여건과 발전 잠재력

1. 충남의 경제사회 여건과 문제점

1) 인구 및 지역경제

○ 충남의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1998-2003년 기간 동안 총 1.1만명 증가에 그침

-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은 신산업지대 형성,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가 지속

※ 서천·청양·태안·금산군 등은 인구 7만 이하의 과소지역

○ 산업구조는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운수·통신 등의 SOC 및 기타산업의 비중은 낮음

- 산업별 총생산은 1차산업이 13.7%로 전국평균의 3배이며, 취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이 40.3%로 전국보다 3배 이상 높음

2) 지역간 불균형 발전

○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가 지역발전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거점의 발달이 미약

- 대전, 청주 등 전통적인 중심도시와 단절되어 자체의 혁신역량 및 고급서비스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

○ 산업인프라가 집적된 북부지역과 농어촌 지역인 중부 및 서해안 지역과의 발전 격차가 심화

3) 인프라의 부족과 물류유통 기반의 쇠퇴

○ 교통망의 편중 발달과 교통수단간 연계가 미흡하며, 특히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부족

- 서북부지역-대전간, 서부해안-중부내륙간 기간교통망이 미흡

○ 항만시설이 부족하여 국제물류 기반이 취약

- 국제무역을 위한 컨테이너 전용부두 계획이 미흡하며 무역항은 산업단지 및 발전소 전용항만 위주로 개발되어 일반화물 처리가 곤란

○ 지역상권은 광역교통망의 발달로 대도시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의 경쟁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의 상권을 잠식

4) 연안 및 하천 수질의 악화

○ 수자원 부존량은 108억톤/년으로 단위면적 기준 환산시 전국의 1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풍부함

○ 충남지역의 단일유역인 삽교천은 북부지역의 산업 및 인구집중으로 수질오염이 심화

○ 서해연안의 수질은 연안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자정작용 능력이 감소하여 악화가 진행되고 있음

2. 충남발전의 새로운 기회

1) 충남의 입지잠재력 부각

○ 연기·공주지역에 행중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전국에서 2-3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면 충남의 국토중심지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

○ 환황해 경제권의 부상과 서해안 시대의 전개에 따라 충남의 입지잠재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인프라의 확충으로 충남의 산업입지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증대될 전망

○ 도청이 충남의 중심부로 이전할 경우 공간구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

2) 지역혁신의 핵심자원인 고급인력 및 산업기반의 집적

○ 도내에 34개 대학이 입지하며, 교수 3,890명, 대학생 144,473명, 대학원생 10,325명을 수용

- 천안 반경 10km 이내에 12개 대학에 10만명이 재학하여 국내 최대의 대학촌을 형성

○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하여 첨단 신기술 이전·보급 여건에 유리하며, 계룡대 입지로 군·산·학 연계체제 구축이 가능

○ IT, 문화산업, 인삼·약초, 농업바이오 클러스터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

3) 거시적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 초고속 정보망 및 교통망의 확충에 따라 경제·사회 활동이 광역화되고 지역간 경쟁이 격화될 전망

○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전개에 따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할 전망

4) SWOT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국토중심지로서의 입지잠재력 ■ 풍부한 문화·역사·관광자원 ■ 대학 및 고급인력의 집적	■ 중추관리 및 전문서비스의 취약 ■ 지역중심지 발달의 미약 ■ 도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국가중추행정기능의 역내이전 ■ 환황해 경제권의 급성장 ■ 서해안지역의 접근성 개선	■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고착화 ■ 북부지역의 난개발 가능성 ■ 지역개발 성과의 외부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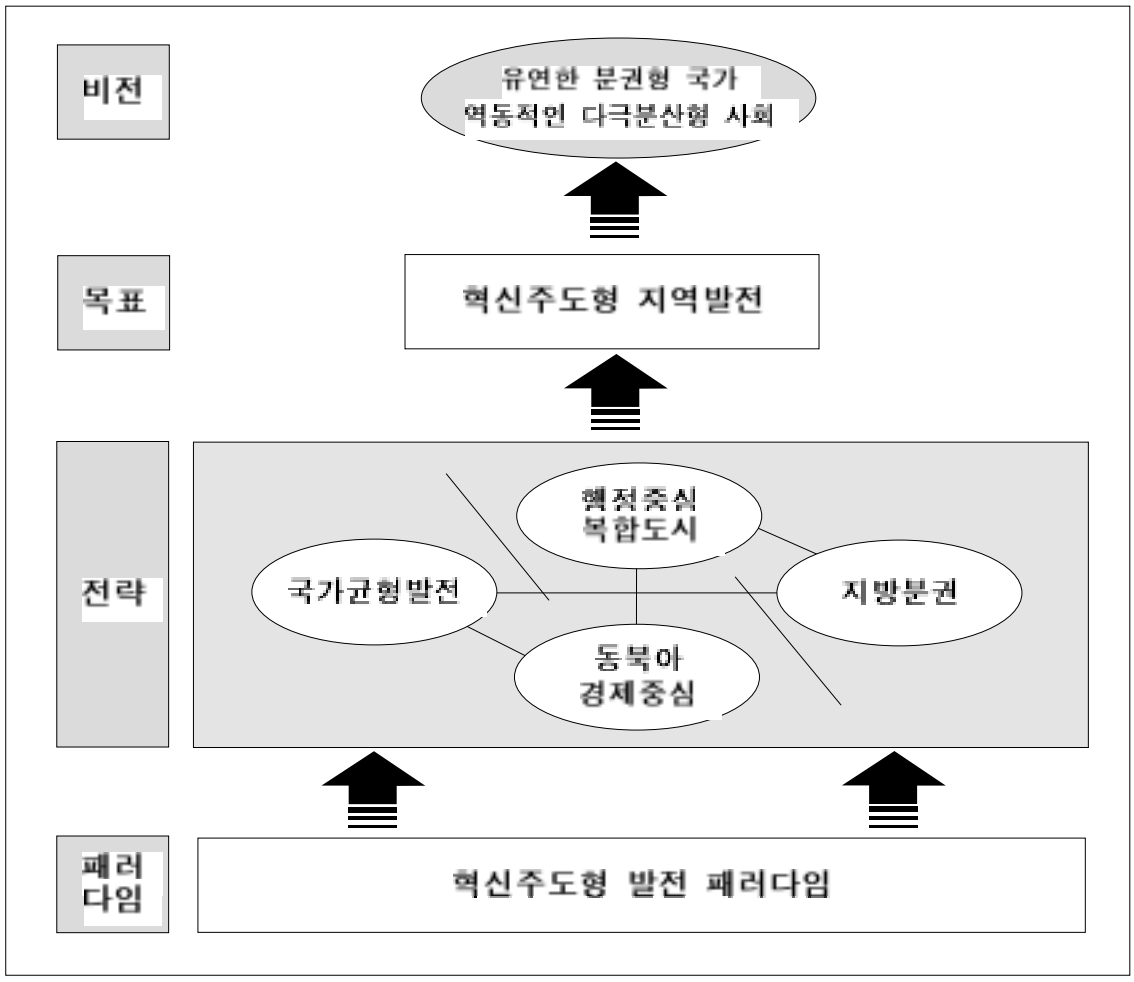
Ⅱ. 국가정책의 방향과 도정 기조

1. 국가재도약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1)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유연한 분권형 국가 및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의 건설을 통해 국가재도약 실현

○ 목표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 추진



[그림 1]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

2) 주요전략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충남 연기군·공주시 일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국무총리 및 재경부 등 12부 4처 2청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

○ 개발규모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며, 인구밀도는 ha당 300~350명 수준으로 설정

- 예정지역: 충남 연기군·공주시의 5개면 33개리의 73㎢(2,210만평)
- 주변지역: 충남 연기군·공주시, 충북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의 224㎢(6,780만평)

(2)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 지자체, 지방대학, 연구소, 기업, 시민단체 등 혁신주체들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학습과 혁신을 통해 자립적 지역발전을 추진

○ 생산과 연구개발기능이 단절된 기존의 연구단지와 국가공단을 두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 핵심선도기술 개발, 공공연구센터 유치,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

- 지역의 비교우위와 산업기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

※ 충남의 전략산업: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산업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양질의 교육 및 주거여건을 구비한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으로 육성

-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와 연계된 혁신도시(농업바이오도시, 정보IT도시 등)를 주요 거점별로 건설

○ 혁신도시의 개발유형은 기능과 입지, 개발규모 등에 따라 재개발 방식, 신시가지 개발방식, 신도시형 등 3가지로 구분

□ 신활력지역의 발전 촉진

○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매년 2천억원 지원

○ 지역 내부인사, 출향인사, 인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잠재력 강화

-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System 구축, Actor/Innovator의 혁신 역량 강화,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도 Project/Program 개발

○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하여 5都2村사업(영농체험, 관광휴양, 전원주택 등)을 활성화하고, 1·2·3차 산업간 융합을 시도

(3)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추진

□ 금융허브 육성

○ 우리나라를 자산운용업에 특화된 금융허브로 육성

- 연기금 및 외환보유고 등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며, 구조조정, 개발금융 등 특화금융도 적극 발전

-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을 개선

□ 물류허브 육성

○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 3대 물류거점인 인천, 부산, 광양의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 및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건설하며 배후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육성

- 물류전문기업 육성, 물류인력 양성, 공항·항만의 생산성 향상, 효율적인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외국기업 물류센터 유치 등 추진

□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

○ 첨단산업 육성, 물류허브, 금융허브, 관광허브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

- 투자유치 대상선정, 유치활동, 투자인센티브와 제도 개선, 투자성과 모니터링 등을 일관된 체제하에서 추진

(4) 지방분권의 강화

□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및 원칙

○ 지방분권의 기본이념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책임하에 집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

○ 지역의 자율과 주민참여의 원칙

- 국가는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

□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 국가사무의 이양, 기관위임사무의 정비, 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교육자치의 개선

○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제고와 지역의 재정 자율성 강화

○ 지자체의 조례제정, 인력관리 등 자치행정역량 강화

○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2. 충남의 도정 기조와 성과

1) 관선기(1990-1995)

○ 대중국 교류 확대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서해안개발사업」을 능동적으로 수용

○ 지역 차원에서는 백제문화권개발계획('94), 금강종합개발계획,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94) 등을 추진

○ 막대한 투자재원 소요와 복잡한 선행절차 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였음

2) 민선 1, 2기(1995-2002년)

○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이 장소발전(development for place) 중심에서 주민의 번영(development for people) 중심으로 변화

○ "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충남"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혁신을 통한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 실현에 역점

○ "푸른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 충남 환경장기비전 수립 등 환경마스터 플랜을 구체화

3) 민선 3기(2003년-현재)

○ 「인간·지식·문화」로 집약되는 21세기 시대조류의 변화에 부응하여 「人本복지」와 「知識경영」을 도정의 2대 기조로 설정

※ 3대 도정목표: 지역경쟁력 제고, 미래인재 양성, 자치역량 강화

○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Heart of Korea)로 도약하기 위해 일류경쟁력 배양과 국가발전의 성장동력 창출을 선도

※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권역별·테마별 관광산업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국가행정의 중심지로 발전

4) 평가

○ 선택과 집중의 결여로 도가 보유하는 잠재력의 극대화에 실패

○ 지역의 인적, 물적 특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조사의 결여로 특성화된 only one 상품 개발에 실패하고 모방품의 범람을 초래

새로운 트렌드인 자립적 지방화, 고속화, 경쟁심화 등에 대응하여 충청의 attractiveness 경쟁에서의 승리가 생존의 필수조건

Ⅲ. 충남발전의 비전·목표와 전략

1. 비전 및 목표

1) 비전

새로운 국토중심으로서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는 충남

2) 목표

① 신성장 동력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② 전통산업의 개성화와 현대화
③ 특색있는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
④ 풍요롭고 여유로운 도·농 공동체 형성

2. 추진전략

추 진 전 략	정 책 수 단
① 공간구조 재편과 지역균형발전 ② 기간 인프라의 확충 ③ 신성장동력 전략산업의 육성 ④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문화관광 육성 ⑤ 삶의 질 제고 ⑥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효율성 제고	① Hardware 개선 ② Soft Power 고도화 ③ Institutional 기반구축

Ⅳ.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1. 공간구조 재편과 지역균형발전

신산업벨트, 서해안권, 중부권으로 특성화된 공간개발 전략을 통하여 지역별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

1) 3대 권역 설정

(1) 신산업벨트

○ 연기-천안-아산-당진-서산을 연결하는 지역을 광역 아산만권 개발을 선도하는 첨단 지식기반산업과 해양물류산업벨트로 육성

- 바이오, IT, 철강신소재, 정밀화학, 자동차, 전자산업의 육성
- 대산-당진-평택항의 통합운영체계 구축

○ 신산업벨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인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 신산업벨트와 수도권의 평택, 충북의 오창과 연계 발전체계를 구축하여 중부권의 광역산업지대를 형성

(2) 서해안권

○ 태안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와 수도권 및 충청권을 지향하는 국제적인 해양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수도권 및 호남권의 서해안 지역과 연계 발전체계를 구축

- 서천과 군산지역의 산업 및 물류기능의 연계발전 도모

(3) 중부권

○ 북동부의 신산업벨트와 서해안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 대도시권의 배후 지원 및 휴양기능을 중점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 대덕과 연계 발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전통산업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역사·문화·환경·향토산업의 융합을 도모

[그림 2] 공간구조 구상

2)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광역 대도시권의 형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광역도시권, 신산업벨트권, 주요 거점 지역간의 상호 기능분담 및 연계를 통한 도시네트워크 형성

○ 지자체간 협력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도시권의 체계적인 성장관리를 유도

- 도시간 광역시설의 분담배치 및 공동이용, 광역교통체계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 내륙 및 서해안지역에 대한 행정중심도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특화산업을 육성

2. 기간 인프라의 확충

1) 환황해권 교류거점 항만의 개발

○ 환황해권 시대의 진전에 대응하는 항만 건설

- 서해안 신산업지대의 물류수송을 지원하는 대산항, 당진항을 건설하고 평택항과 연계하여 서해안의 관문항으로 육성

○ 항만연계 교통망의 확충

- 대산항-당진항-평택항 연결 도로 등 항만연계 교통망을 개설하여 항만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2) 철도 및 간선도로망의 확충

○ 철도망 확충

- 아산만권과 북부해안 지역의 대량 수송수요에 대응하여 동서산업선(천안-당진-대산) 건설을 추진

- 서해안 지역의 물동량 및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장항선 개량화 및 경부선·호남선 복선전철화사업의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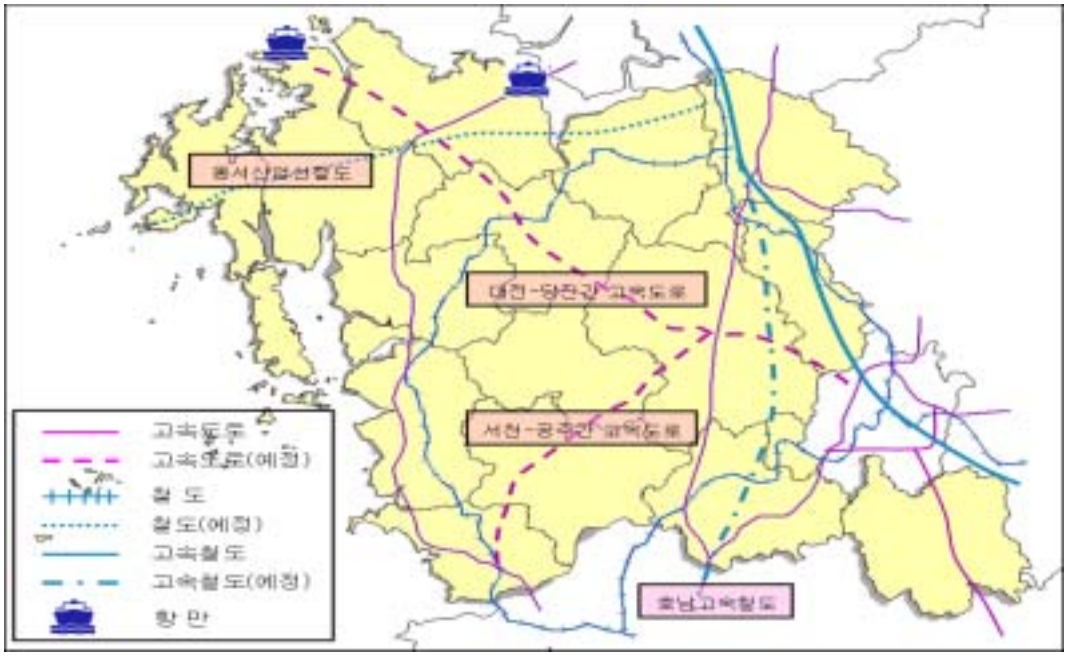
-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통하여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계하는 교통결절지로서의 위상을 강화

○ 간선도로망 확충

-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및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을 조기건설하여 도내 1시간 생활권 시대를 달성

- 지역중심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개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

- 충남서해안 지역의 산업·관광벨트 도로망을 구축하여 금강변 산업관광도로와 연결



[그림 3] 인프라 개발 구상

3) 신교통체계 구축 및 정보화의 추진

○ 친환경적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추진

- 천안-아산, 행정중심복합도시-계룡-대전, 금산-대전 구간 등 도시광역화에 대응하여 경전철 건설을 추진

○ 기존교통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첨단교통체계의 구축

- 도시의 연담화 및 교류증대에 대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설립

○ 시공자재(Ubiquitous) 정보화의 추진

- 의료, 사회복지, 생활정보 등의 생활정보서비스와 전자정부 및 민원행정, 지역커뮤니티, 공공서비스를 통합하는 디지털 충남의 실현

4) 물류·유통기반의 강화

○ 광역물류권의 설정 및 물류거점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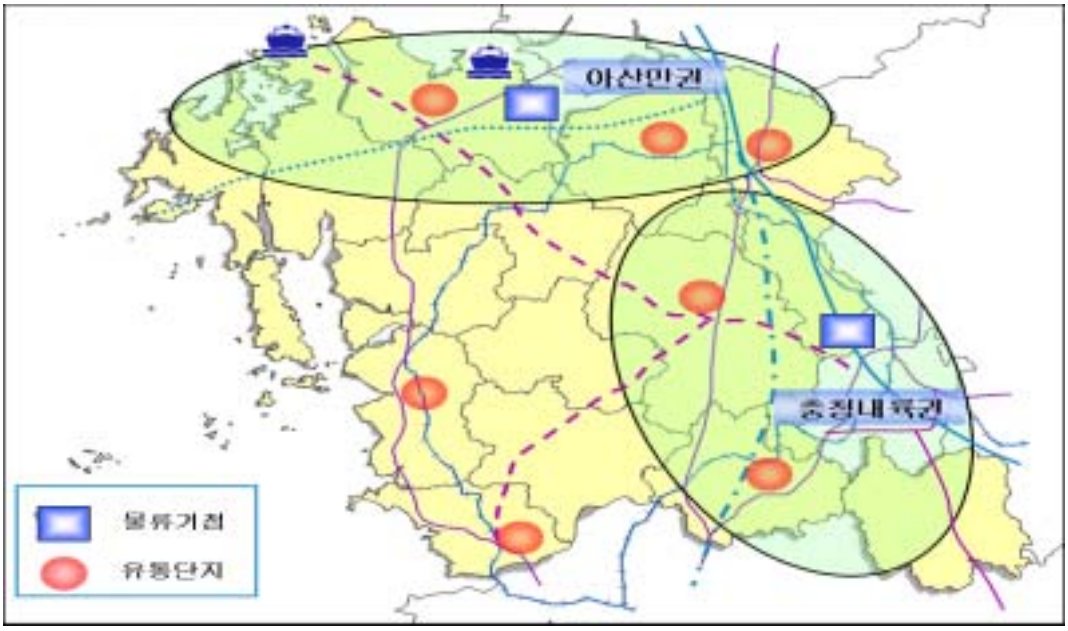
- 아산만권 : 충남 북부지역의 산업단지 지원 및 농축산물 처리를 위한 물류거점 기능 수행 및 수도권 물류의 흡수

- 충청내륙권 : 대전, 청주 등 충청권 중심부의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담당하여 전국의 내륙물류거점으로 육성

○ 지역별 물류시설의 확충

- 천안, 아산, 당진, 공주, 논산, 보령, 서천 등에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지역별 물류를 종합 처리

- 서산(수산물), 금산(인삼·약초), 예산(과수·채소), 홍성(축산물), 청양(구기자·고추·임산물) 등에 지역특산물 유통단지를 건설



[그림 4] 물류거점 개발 구상

○ 농산물유통의 혁신과 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농산물 산지유통거점 조직에 대한 지원과 품질인증 및 브랜드화, 마케팅 지원체제를 구축

3. 신성장동력 전략산업의 육성

1)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4대 전략산업의 육성

○ 전자·정보기기산업

- 천안, 아산지역을 디스플레이 기술혁신의 핵심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 아산의 전자·정보기기 집적화단지 조성과 성거지방산업단지의 Display산업 육성,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육성

○ 자동차·자동차 부품산업

- 자동차 부품산업의 특성화를 추진하여 첨단부품 R&D 집적화센터를 건립하며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특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

○ 첨단문화산업

- 충남의 전통문화와 첨단정보기술을 결합하여 게임, 문화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지털영상, 모바일컨텐츠 등 첨단문화산업을 육성

※ 충남 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컨텐츠 개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 농·축산 바이오 및 정밀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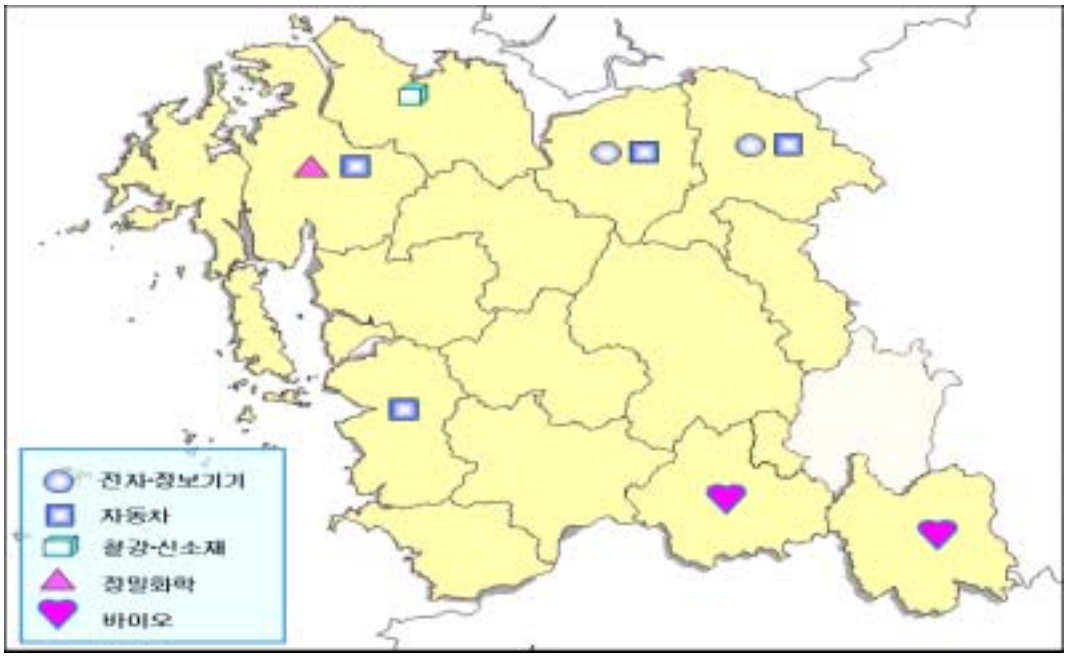
- 생명공업(기능성 식품), 인삼·약초바이오, 축산바이오 분야에 특화하여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

- 정밀화학산업을 육성하여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고부가가치화

2)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육성

○ 지역별, 산업단지별로 전문업종을 육성하고, 배후지역에 연관산업 집적지를 형성

- 천안, 아산, 보령 : 자동차, 반도체, 전자·정보기기
- 당진, 서산 : 철강·신소재, 정밀화학
- 논산, 금산 : 바이오



[그림 5] 전략산업 클러스터 개발 구상

3) 전략산업 지원기관의 육성

○ 전략산업별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기관을 조성하고 운용기반을 확립

○ 기업지원서비스의 산업인 컨설팅, 정보지원, 협력중개 등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소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

○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용, 충청권 벤처 프라자 운영 사업 등 추진

4)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충남의 only one 향토산업 육성

- 충남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충남에서만 가능한 향토산업을 개발, 육성

○ 향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환경 등 지역 고유 부존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추구

- 금산의 실버산업, 보령의 머드산업, 계룡의 軍문화 엑스포, 논산의 신선딸기, 홍천의 광천토굴새우젓, 서천의 민속주, 서산의 육쪽마늘 등 지역별 향토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 프랑스 와인, 치즈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리적표시제, 원산지증명 등을 적극 활용

4.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문화관광 육성

1) 테마형 문화관광벨트의 설정 및 육성

○ 백제고도권

- 공주·부여의 백제 역사문화 자원과 금강의 생태축을 연계하여 문화·역사·생태관광에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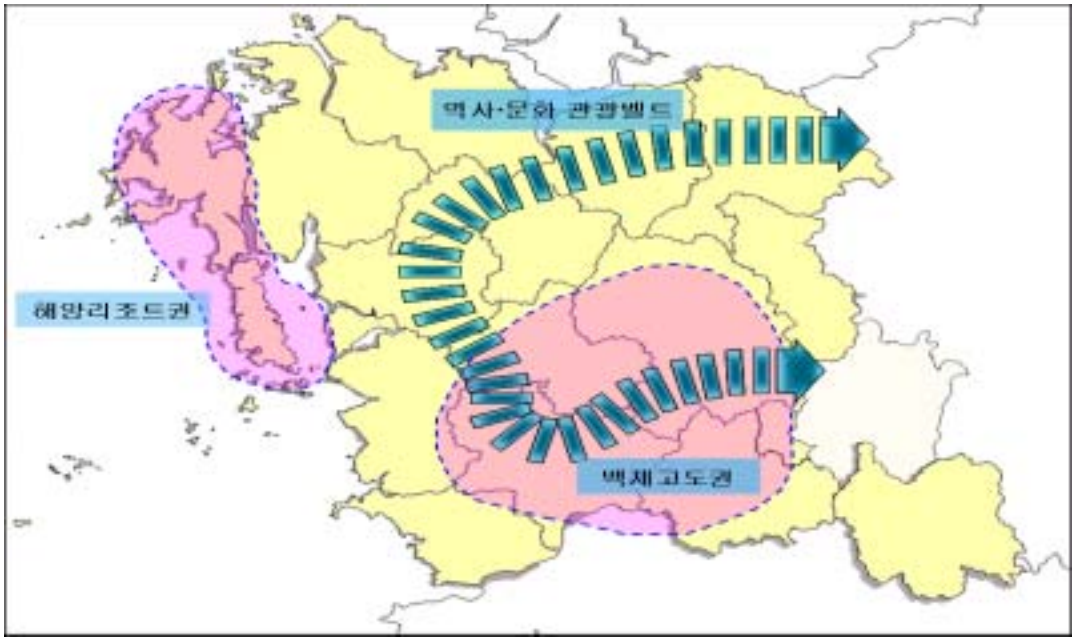
○ 해양리조트권

- 안면도 국제관광지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양자원을 연계하여 서해안 관광벨트의 생태·휴양·위락관광 거점으로 육성

※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의 재정비 추진

○ 역사·문화 관광벨트

- 천안-아산-예산-홍성-청양-부여-공주를 연결하여 내포문화 및 백제문화와 온천자원을 연계한 역사체험 휴양지대를 형성



[그림 6] 문화관광권 개발 구상

2)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

○ 복지, 의료, 여가, 레저, 관광, 레크리에이션 등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 세계인삼 엑스포 개최

- 인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일류의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인삼 엑스포를 개최

※ 「고려인삼」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국가적 행사로 개최

○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를 통한 문화관광 도시 개발

- 공주, 부여, 강경, 해미, 홍성 등 고도의 역사, 문화, 유적, 환경 등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시범도시로 개발

※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중심으로 「백제트리엔날레」 개최

○ 농촌의 경관, 관광, 문화 등을 활용하는 그린투어리즘의 확대와 경제 기능의 다원화를 통한 복합산업 공간화 촉진

5. 삶의 질 제고

1) 주거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살기 좋은 우리동네 정책을 통해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를 개발

- 공동체 의식과 지역성을 강조하는 주거단지 조성을 장려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

○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

- 광장, 보도망, 공원녹지공간, 어린이 놀이터, 근린시설 등 커뮤니티 단위의 주거시설을 확충

○ 따뜻한 정과 이웃사랑이 있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 실현

- 더불어 사는 이웃을 만들어 가고 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2)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충남의 실현

○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재해경보체계를 구축하여 태풍, 홍수, 화재 등 재해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정보화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충청남도 119 종합안전정보화센터」를 설치 운영

○ 재해의 예방, 구조, 복구, 구호물자보급 등을 체계화하는 지역방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방재체계 구축을 지원

○ 습지, 철새도래지 등 주요 생태자원의 보전

- 안면도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안면도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 천수만 주변 간척지의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를 추진하여 철새생태공원, 철새학습관 등을 건립

○ 도심하천의 생태기능 회복사업 추진

- 하천수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또는 하천수를 상류지점에 이송하고 하상정비 및 생태습지공원 조성, 조명·분수 설치

6.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효율성 제고

1)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도정체계 구축

○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충남에 애정을 갖는 외부의 전문인사를 활용

- 개방적인 의식을 고양하고 신지식 및 경험 습득의 기회로 활용하여 우물안 개구리에서 탈피

○ 민·산·학·연·관의 협력지향적 도정운영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협력·조정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 무한경쟁 시대에 대응하여 외적 개방과 내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적으로 공유

- 모든 지역이 주체로서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는 지역간 제휴와 협력을 활성화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성 제고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효율의 제고

-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조하여 도정의 목표달성도를 제고

○ 주민동의를 토대로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확립하여 사업추진상의 갈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

3) 충청권 공동발전체제의 구축

○ 충남, 대전, 충북의 연계발전

- 충남의 전자·정보산업, 충북의 바이오산업, 대전의 과학기술도시 등 3개 시도의 전략산업의 연계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충청권 공동발전체제의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고속철도 건설 등을 계기로 충청권 공동발전체계를 구축

○ 충남과 인접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서해안 포럼」의 결성과 활성화

Ⅴ. 결 론

1. 급변하는 거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

○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립형 지방화, 고속화, 혁신 등 새로운 시대조류에 대응하여 충남의 매력을 upgrade할 중요한 시기

2.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성의 강조

○ 충남이 보유하는 유형, 무형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

-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벨트를 적극 개발

3. 「충남 only」 상품의 개발

○ 충남의 인적, 물적, 지리적 특성에 기반을 둔 창조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극대화

- 문화, 산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충남의 전통적인 자산을 현대적인 기술, 트렌드와 접목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새로운 국토중심으로서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유하는
충남 건설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